

정서적 갈등, 에너지장과 동종요법

| 라이마르 배니스 | 박병오 '지금여기' 번역위원 옮김 |

우리의 사고와 느낌은 인체에너지장의 영향을 받는데, 이 에너지장을 변화시키는 동종요법의 효과와 최신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편집자 주). _____

훈련된 테라피스트가 특별한 동종요법을 사용하여 몇 분 만에 환자의 숨겨진 정서적 갈등을 찾아내는 것을 목격하면 많은 사람들은 매우 놀란다. 여기에 사용된 방법은 정신신체에너지학 (Psychosomatic Energetics: PSE)이라 알려진 것인데, 이것은 필자가 자연요법 의사로서 많은 질병에는 정서적인 갈등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십년 이상 조사한 후 개발한 것이다. 여러 가지 동종요법을 혼합한 치료법들은 이러한 정서적 갈등을 확실하게 찾아낼 수가 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그로부터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특히 동종요법의 일반이론에 대해) 여기서 더 자세히 설명하려 한다.

동종요법과 미세에너지장

약 200년 전 동종요법을 발견한 내과 의사이며 약제사인 사무엘 하네만(Samuel Hahnemann)은 약물에는 생리적 작용 외에도 일종의 “정신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건강한 피실험자에게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어떤 동종요법약물을 투여할 경우, 그는 정신적, 정서적으로 전형적인 특정 증상들을 보이게 된다. 이번



그림 1. 사무엘 하네만의 말년 모습

에는 동일한 약물을 정신적, 정서적으로 피실험자와 정확히 동일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투여한다면, 이 동종요법만으로도 놀라운 치유 효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동종요법의 치유법칙(The Healing Law of Homeopathy)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물질들은 치유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다.

에너지법칙은 공명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이것은 동일한 진폭을 갖는 파장들이 중첩될 때 서로를 상쇄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동종요법은 하나의 “정보의학(information medicine)”으로서 비물질적인 치유과동이 사실상 치유작용을 한다고 본다. 이 적극적인 치유작용은 물질적 방법만으로는 찾아내지 못한다. 예를 들어 동종요법약물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 그것은 어떤 원래의 물질도 더 이상 함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건강한 피실험자에게서 나타나는 정신적, 정서적 증상이나 고통 받는 환자에게 나타난 치유효과는 그것의 충분한 증거가 된다. 게다가 에너지에 효과가 나타나므로 에너지에 관한 실험을 할 수 있다. 우리는 라인하르트 폴(Reinhard Voll) 박사의 전기침술(Electroacupuncture)이나 신체운동학(kinesiology) 실험과 같은 많은 현대의 진단과정들을 통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

동종요법의 작용원리에 의해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상태가 전체적으로 에너지와 결정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에너지 치료약인 동종요법약물의 효능에 대해 그 외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에너지장에 오랫동안 담겨있던 정신적, 정서적 증상들이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치유된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은 “에너지장”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중국인들이 말하는 기(氣), 인디언들의 프라나(Prana)는 식별할 수 없는 생명의 힘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덮개처럼 모든 생명체를 감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장(아우라)으로 나타난다. 동종요법의 작용원리에 의하면 우리의 사고와 느낌은 부분적으로(심지어는 강하게) 이 에너지장의 영향을 받는다. 동종요법으로 에너지장을 변화시키면 치유효과를 가져오는데 이것은 아마도 동종요법의 실제적인 치유효과가 바로 이 에너지장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에너지장은 또한 세포의 물질대사에 중요한 시간축이 되므로, 이것을 전제로 하면 우리는 동종요법의 효과가 대략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알 수 있다.

에너지장과 의식

서구문화에서는 일반적으로 사고와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과 관련이 없다고 본다.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정서적인 갈등은 순전히 정신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는 반대로 유물론적인 뇌 연구자들은 독립된 실체로서의 의식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정서 상태, 기분이나 정서적 갈등과 같은 현상들은 오로지 뇌 기능의 변화에 기인하며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동종요법과 기타 많은 방법들(요가에서 PSE에 이르기까지)로부터 얻은 경험에 의하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결론을 얻게 된다. 이들은 감정과 사고는 미세에너지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정서가 물질적인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핵자기공명단층촬영기(NMR)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보수적인 뇌 연구자들의 견해는 부분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자연요법, 레이키, 에너지심리학 등의 분야에서 목격되어온 모든 현상을 결코 설명할 수 없다. 이 경험들은 의식도 에너지의 현상들에 의해 영향 받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면 물질 몸(뇌 조직)과 에너지장과 의식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비록 이 분야가 아직까지는 많이 탐구되어 있지 않지만 일상적인 연습을 통해 관찰한 경험들로부터 몇 가지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1. 에너지장의 큰 변화가 개인의 사고와 감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므로(잘 선택된 동종요법치료를 통해 때로 놀라운 결과를 관찰할 수 있다), 에너지장은 정상적인 조건이라면 분명히 중요한 조절기능을 한다.
2. 반대로 강력한 정서적 저항이 모든 치유의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식 또한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심각한 뇌기능 장애를 가진 사람(예를 들어 내인성 우울증에서 비롯된 신경전달물질 결핍의 경우)은 가끔 동종요법의 조절효과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항우울제 형태의 대증적 치료를 해야 한다. 따라서 내부적인 교정 및 조절과정에 과부하가 걸렸을 경우에는 뇌기능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에너지장의 역할은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포괄적으로 중요한 것 같다. 명상과 요가의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결과들 뿐만 아니라 정신, 신체적 환자에게 적용한 동종요법의 임상경험들은 그러한 상호관련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에너지장 역시 큰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갈등 치유하기

경험에 의하면 동종요법의 단일 치료약들은 많은 정신, 신체적 이상 상태들에 매우 유효하다. 고전적인 동종요법에서는 환자의 증상과 수많은 약물들의 특성을 비교하는 지난한 작업을 통해 적절한 약물을 찾아내는 반면, 우리는 에너지테스트를 통해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정확

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최고의 치유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면 쇠약증상을 가진 만성피로환자를 치료할 때(그를 REBA 테스트 해본 결과 생명에너지와 정서에너지 수준이 20%로 낮게 나왔다), 적절한 단일 동종요법치료약은 이 에너지 수준을 현저하게 올려줄 수 있다. 경험적으로 쇠약증상 또한 사라지고 환자의 기분은 다시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실제로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올바른 단일 동종요법치료약을 찾아내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개 진정한 전문가만이 이 어려운 과정에서 매우 높은 성공률을 보인다(적어도 내 경험으로는). 반면에 에너지적으로 치료약을 매우 신속하게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흔히 단기적이어서 끊임없이 새로운 약물들을 시험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많은 에너지 테라피스트들은 에너지장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 노소드(nosodes)와 아이소패틱(isopathics), 영양보조제 외에도 보통 많은 동종요법들을 동시에 실시한다. 필자는 수십 년 동안 전기침술과 베가테스트(Vegatest Method)를 사용해 오면서(물론 결코 매번 실패한 것은 아니었다), 지금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당시에도 좀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

필자는 현재 PSE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요법이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에너지장을 영구적으로 약하게 하는 정서적인 갈등들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많은 경우에 그렇듯이 부조화의 실제적인 일차 원인을 다루지 않을 수 없고 또는 (다양한 요법들에 의해 갈등들이 일시적으로 힘을

않게 되는) 부분적인 치료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라도 영구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상적인 에너지 장과는 달리, 정서적인 갈등들은 마치 우주의 블랙홀처럼 특별한 존재 상태가 되는 것 같다. 갈등은 한 사람의 전체적인 에너지장으로부터 에너지를 빨아내므로 인체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체와 분리된 자신만의 에너지장을 가지고 있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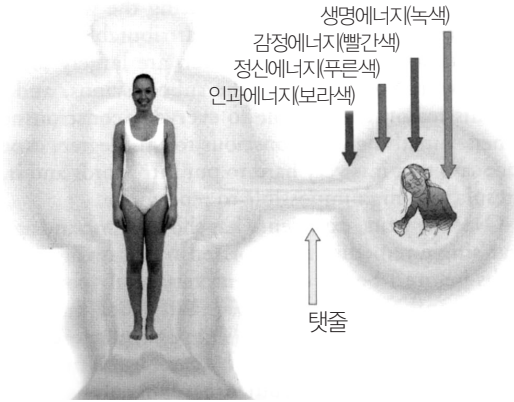


그림 2 인체와 정서적 갈등의 에너지장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단일 동종요법치료약은 이러한 갈등들에는 별로 큰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거기에는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정서적인 특질들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동종요법만으로는 적절히 대처할 수 없는 것 같다. 더욱이 갈등에는 동종요법만으로는 다루기 매우 어려운 또 다른 특성이 있는 듯하다—다시 말하면 갈등은 빛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매우 유사하게 치유의 파동을 흡수한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 PSE를 적용하여 동일한 동종약물을 수개월 동안 복용해도 아무런 약리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곤혹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 같다—갈등들이 치유의 파동들을 완전히 흡수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리효과가 결코 나타날 수 없다.

이러한 관찰결과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 고전적인 동종요법은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에너지장 전체에 작용하지만, 에너지를 흡수하는 갈등에는 거의 또는 아무런 효과도 나타내지 못한다.
2. 갈등은 갈등의 내용에 담긴 파동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정밀하게 조절된 동종혼합물 치료의 조합(Emvita[©] Emotional Remedies)으로 치유될 수 있다. 갈등의 정서적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약효증강(potentiation)¹⁾에 의해) 이 동종혼합 치료약에는 어떤 약리작용도 나타나지 않는다.
3. PSE와 고전적 동종요법은 그 접근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전자는 갈등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반면, 후자는 개인의 에너지장 전체를 다룬다. 그러므로 이 두 방법은 서로 충돌하지 않으며 사실 실용적인 면에서 서로를 보완할 수 있다.

갈등 목록화의 고충


대부분의 환자들은 PSE로 테스트 받은 후 어떤 갈등들이 그들에게 내재하는지를 듣기 전에는 자신의 갈등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이 말은 다소 이상하게 들리지만, 늘 착용하고 있는 안경을 찾느라 헛수고 하는 꽤 친숙한 상황과 유사하다. 이러한 맹점이 생기는 것은 단순한 습관화(habituation) 때문이다. 게다가 갈등은 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의 잠재의식에 존재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의식으로는 접

1) 두 가지 약물의 시너지적 작용을 말하는데, 하나만을 사용할 때의 약효를 합한 것보다 크다. 하네만은 희석하는 약물의 용량이 적을수록 강력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약효증강의 법칙(Law of Potentiation)', 또는 '극소량의 법칙(Law of Infinitesimal)'이라 명명하였다.(역자 주)

근할 수 없다. 경험에 의하면 무의식화 되어 있는 어떤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갈등을 목록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수년에 걸쳐 여러 번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필자가 치료를 시작하기 이전에 고전적인 동중요법이 제공한 단일 치료약들이 PSE에 의해 밝혀진 갈등의 내용과 일치하는 일은 드물다. 따라서 이것으로 우리는 왜 고전적 동중요법이 (기껏해야) 간접적으로만-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이 꿈을 이용하는 것처럼-갈등의 내용들에 대해 알아낼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갈등을 치료하는 데는 고전적 동중요법과는 다른, 에너지심리학, PSE 그와 유사한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요약

올바른 치료약들을 사용하기만 하면 고전적 동중요법은 매우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PSE의 갈등 치유과정은 보통 몇 달이 걸리며 어떤 경우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 따라서 이 두 방법은 서로를 아주 잘 보완한다. (-PSE와는 달리 환자의 전체 에너지장도 다루는-) 하나의 고전적 동중요법은 인체의 구조를 다루고 광범위한 신진대사 항상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보조요법으로서 상당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필자는 두 방법을 조합하여 적용했을 때 반복적인 탁월한 효과를 얻었다. 예를 들면 수개월 동안 정신이상 환자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뮌헨의 정신과의사 베노 비프(Benno Wipp)의 칼슘 카보니쿰(Calcium carbonicum) LM6를 동시에 처방했다. 

참고문헌

- Banis, Reimar: *Spirituelle Energiemedizin*[Spiritual Energy Medicine], Via Nova Petersburg 2007.
- Banis, Reimar: *Lehrbuch der Psychosomatischen Energetik*[Manual of Psychosomatic Energetics], VAK Vlg. Kirchzarten 2003.
- Banis, Ulrike: “Kann man Psychosen mit Energiemedizin heilen?”[Can Energy Medicine Heal Psychoses?], *Psychosomatic Energetics Reader*, Vol.3, Co’med Verlag 2007.
- Gallo, Fred: *Energetische Psychologie*[Energetic Psychology], VAK Vlg. Kirchzarten 2000.
- Kohler, Gerhard: *Lehrbuch der Homöopathie*[Manual of Homeopathy], Hippokrates 2003.
- Solms, Mark & Turnbull, Oliver: *Das Gehirn und die innere Welt*[The Brain and the Inner World], Patmos Vlg. 2007.
- Wipp, Benno: *Homöopathie in Psychiatrie und Neurologie*[Homeopathy in Psychiatry and Neurology], Haug Vlg. Heidelberg 1984.

- 이 글은 'Emotional Conflicts, Energy fields and Homeopathy'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전재나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 관련기사는 “지금여기” 12-3호(2007년 5/6월호)의 “정신신체에너지학(154~166쪽) 참조(역자 주)

저자 | **라이마르 배니스(Reimar Banis, M.D., Switzerland)** | 배니스 박사는 1951년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났다. 빌헬름 라이히(W. Reich), 불교, 철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였고, 2년 동안 자연요법(Naturopathy) 시술자로 훈련받은 후에는 하이델베르크에서 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1982년에 미국 의사자격(ECFMG)을 취득했고, “체온조절(Thermoregulation)”에 관한 연구로 하이델베르크대학 교에서 ‘우등생’으로 의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폴(Voll), شم멜(Schimmel), 슈밤(Schwamm)과 같은 저명한 생리학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남부 독일에서 베가 테스트(vega testing)과, 동종요법, 에너지의학, 피부온도측정(thermography)을 전문으로 하는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소위 “정신신체에너지학™”을 창안하였으며, 유럽의 에너지의학 분야에서 가장 진취적이고 유명한 전문가 중의 한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

역자 | **박병오** | '지금여기' 번역위원